

장기기증 및 이식에 관한 국내 간호연구 동향분석

유혜숙¹ · 소향숙² · 김혜숙³

전남대학교병원 장기이식센터 코디네이터¹, 간호대학 교수², 조선대학교병원 장기이식센터 코디네이터³

Analysis of Nursing Researches about Organ Donation and Transplantation in Korea

You, Hye Sook¹ · So, Hyang Sook² · Kim, Hye Sook³

¹Coordinator, Organ Transplantation Center,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²Professor, College of Nurs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³Coordinator, Organ Transplantation Center, Chosun University Hospital

Purpose: This study analyzes the trends of nursing researches about organ donation and transplantation, and recommends the direction of future nursing studies in Korea. **Methods:** Ninety-nine researches based upon organ donation and transplantation in Kore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Results:** Among them 58 papers were master's theses and 9 were doctoral dissertations. Articles about organ beneficiaries were seventy. The 47 articles among them were for kidney transplantation. By the types of research design, there were 73 quantitative studies, 19 qualitative studies, and 9 methodological studies. In correlation studies, the quality of life of subjects were evaluated the association with stress, social support, self-efficacy, and compliance. In experimental studies, the independent variables were self efficacy promotion exercise, steroid medication, educational programs regarding an organ transplantation and a brain death, DanJeon breathing exercise, and telephone counseling. The methods of qualitative studies were based on the grounded theory, phenomenology, interpretive phenomenology, and ethnography. The dominant concepts of qualitative researches were experiences of a decision-making of donors and of recipients for organ transplantation. **Conclusion:** Descriptive surveys or correlation studies were predominant on the nursing research about organ transplantation. Qualitative studies were conducted to some extent. It is recommended to conduct clinically applicable interventional researches with the experimental design.

Key Words : Organ transplantation, Nursing research, Analysis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진단과 치료법의 개발로 과거에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많은 질병

들이 치유되고 있으며(Sung, Son, & Lee, 2006), 특히 장기이식은 1950년대 이후 발전되기 시작하여 선진국에서는 말기 장기부전 환자를 위한 치료방법으로 확립되어 있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치료로도 인정을 받고 있다(Ha et al., 2007).

현재 세계적으로 많은 장기이식이 이루어지고 있으

Corresponding address: So, Hyang Sook, College of Nurs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6 Seonamdong-gil, Dong-gu, Gwangju 501-746, Korea. Tel: 82-62-220-4352, Fax: 82-62-227-4009, E-mail: hssso@chonnam.ac.kr

*본 논문은 전남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지원에 의함 .

접수일 2008년 10월 20일 심사회의일 2008년 10월 20일 심사완료일 2008년 11월 25일

며 미국의 경우 2007년에 28,359례의 장기이식이 이루어졌다(UNOS, 2008). 국내의 경우 1969년 신장이식이 시행된 이후 1988년에는 간장이식, 1992년에는 췌장이식과 심장이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1992년 이후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한 뇌사자 장기기증으로 장기이식 건수는 나날이 증가하여 2007년에는 신장이식 928례, 간장이식 748례, 심장이식 50례, 췌장이식 18례, 폐이식 17례가 이루어졌다(KONOS, 2008).

많은 장기기증과 이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증자와 수혜자 및 가족에게 이식에 관한 정보와 직접적인 간호 및 교육, 상담, 지지를 제공하고 그 제반 절차를 중재하고 조정하며 이식관련 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의 역할(Byun, Kim, Kim, Ha, & Joen, 2003)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지적 수준이 높고 기술이 뛰어난 간호사들의 만족스러운 양질의 간호제공과 이를 사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추 수 있는 지식체의 누적과 정립이 필요하다. 이상의 간호전문지식의 성장은 장기이식관련 의료기술의 발전과 함께 장기이식 수혜자들의 삶의 질 증진에 크게 기여하리라 본다. 학문적 지식체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론이나 지식체의 개발뿐만 아니라 선행연구 논문들을 분석, 종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축적된 지식을 확인하고 추후 연구와 지식체의 생성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Kim et al., 2004). 이식관련 실무분야에서 본 연구개념과 관련하여 어떤 유형의 지식이 축적되어 왔는지를 체계적인 연구 분석을 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간호연구 논문분석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부터 일정기간동안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 방법 측면에서 분석되었고, 간호연구의 특정개념이나 주제, 중재프로그램, 통계방법 등의 간호연구논문들이 분석되어 간호학 전반에 탐구경향이나 지식체에 대한 정보와 간호의 각 전문분야에 대한 연구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장기기증 및 이식관련 간호학 연구는 1980년대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발표되고 있으나 현재까지의 연구동향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장기기증 및 이식과 관련

된 문헌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동향을 파악하여 앞으로 구체적인 간호실무연구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장기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간호학 관련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여 향후 장기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간호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국내 장기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간호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시되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국내 장기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간호연구의 연도별 연구유형 및 연구유형에 따른 연구설계를 분석한다.
- 장기기증 및 이식 대상자를 분류하고 장기별 수혜자와 기증자를 분석한다.
- 연구에 적용된 개념들을 파악한다.
- 향후 장기기증 및 이식과 관련된 간호연구의 방향을 제시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장기기증 및 이식과 관련된 주제로 연구된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1987년부터 2008년 6월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장기기증 및 이식에 관한 간호학 관련 논문을 대상으로 99편을 분석하였다. 논문검색은 국내 보건 의료 관련 검색 중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국회도서관, 한국의학논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장기이식, 신장이식, 간장이식, 심장이식, 췌장이식, 폐이식, 장기

기증, 뇌사자 장기기증의 단어로 검색하였다.

하였다.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된 연구는 총 99편으로, 선정된 논문들은 아래의 연구 분석의 기준에 의거하여 분석하였다.

- 연구수행 시기는 5년 단위로 구분하였다.
- 연구유형은 학위논문, 비학위 논문으로 구분하였고, 비학위 논문일 경우 게재된 학술지 유형별로 다시 분류하였다.
- 연구설계는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방법론으로 분류하였다. 양적연구의 경우 실험설계와 비실험설계로 분류하였으며, 비실험설계는 조사연구, 상관관계연구 및 검증연구로 분류하였다. 질적연구는 근거이론, 현상학적 연구,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및 일상생활기술지로 분류하였다.
- 연구대상자는 다양한 대상자를 그대로 나타내기 위하여 장기별로 구분하였고, 대상자가 되는 장기 이식 수혜자와 기증자, 의료인과 비의료인, 학생, 가족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양적연구 중 상관연구 및 실험연구에 적용된 개념들을 파악하여 분류하였다.
- 질적연구 분석방법을 파악하고 연구 개념을 분류

III. 연구결과

1. 연도별 연구유형

1) 연도별 학위·비학위논문 분포와 게재된 학술지 분포

장기기증 및 이식에 관한 연도별 학위·비학위 논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학위논문이 58편(58.6%), 비학위논문이 41(41.4%)편이었으며, 학위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된 경우는 7편으로 학위논문에 포함시켰다. 학위논문은 석사학위논문이 49편(49.5%), 박사학위논문이 9편(9.1%) 이었다. 비학위논문에서는 대한간호학회지 13편(13.1%), 성인간호학회지 12편(12.1%), 기본간호학회지 3편(3.0%), 전문간호학술지(임상간호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한국간호교육학회지, 간호행정학회지, 재활간호학회지) 7편(7.1%), 기타 학술지(각 대학 논문집)가 6편(6.1%)이었다. 연도별로는 Oh(1987)의 석사학위논문을 시작으로 1996년부터 증가하여 2005년까지 10년 동안 78편의 많은 논문이 보고되었으나 2006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Table 1).

Table 1. Types of research according to an age (N=99)

Year	Degree (n=58)		Non-degree (n=41)					Total n (%)
	Dissertation	Master thesis	JKAN	JKAAN	JKAFN	JPN	Other	
1987 - 1990		2						2 (2.0)
1991 - 1995	1	2	1	1	1			6 (6.1)
1996 - 2000	1	11	7	6	1	3	0	29 (29.3)
2001 - 2005	5	29	2	4	1	2	6	49 (49.5)
2006 - 2008	2	5	3	1	0	2	0	13 (13.1)
Total(%)	9 (9.1)	49 (49.5)	13 (13.1)	12 (12.1)	3 (3.0)	7 (7.1)	6 (6.1)	99 (100)

JKA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JKAA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JKAF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JPN,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2. 연구유형별 연구설계 분포

장기기증 및 이식관련 간호연구에서 연구설계 분포를 살펴보면, 양적연구가 총 82편으로 그 중에서 실험연구가 9편, 비실험 연구가 73편이었다. 비실험 연구 중에서는 조사연구 32편으로 가장 많았고, 상관관계 연구가 27편, 검증연구 6편의 순으로 나타났다. 질적 연구는 총 19편으로 그 중에서 근거이론 연구가 9편으로 가장 많았고, 현상학적 연구가 7편, 해석학적 현상학연구 2편, 일상생활 기술지가 1편이었다. 그 외 Q-방법론과 방법론적 연구가 각각 2편, 사례연구, 탐색연구 및 메트릭스 델타이가 각각 1편이었다.

학위논문에서 연구설계 분포를 살펴보면, 양적연구는 석사학위논문에서 40편으로 가장 많았고 박사학위논문은 6편, 질적연구에서 석사학위논문은 4편, 박사학위논문은 3편, 그 외 석사학위논문에서 Q-방법론, 사례연구가 각각 1편씩으로 석사학위논문에서 다양한 연구설계를 이용하여 진행되었다.

학술지별 게재분포를 살펴보면, 양적연구에서 대한간호학회지 6편, 성인간호학회지 9편, 전문간호학술지 6편, 기본간호학회지 2편, 기타 논문집 등에 게재된 논

문이 4편으로 비교적 고르게 게재된 것으로 보였고, 질적 연구에서는 대한간호학회지 6편, 성인간호학회지 3편, 기본간호학회지, 전문간호학술지 및 기타 학술지 게재가 각각 1편씩으로 대한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이 많았다.

석사학위논문에서 조사연구와 상관관계연구가 35편으로 가장 많이 연구되었다(Table 2).

3. 연구대상자

장기기증 및 이식과 관련된 간호연구의 대상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장기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70편으로 가장 많았고, 기증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10편, 의료인 대상자는 10편, 간호대학생 및 의과대학생은 각각 1편, 일반인 대상자는 3편, 기타(이식대기자 및 신 질환자 대상)가 4편이었다. 장기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중에서 장기별로는 신장이 47편으로 가장 많았고, 간장이 13편, 심장이 7편, 장기 구분 없이 모든 이식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3편이었고, 폐와 췌장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장기기증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중에서 기증자 자신으로 한 연구가 7편, 기증자

Table 2. Research designs according to types of researches and journal (N=99)

Type	Quantitative (n=73)				Qualitative (n=19)				Other (n=7)				Total n (%)	
	Exp. (n=9)	Non exp. (n=64)			Grounded Theory	Phenomenology	Interpretative Phenomenology	Ethnography	Q-method	Methodology	Case study	Sear.		Metrics Delphi
Sur.	Cor.	Eva.												
Dissertation	2	2		2	1	1		1						9 (9.1)
Thesis	3	20	15	2	1	2	1		1	2	1	0	1	49 (49.5)
JKAN	1	3	1	1	3	3			1					13 (13.1)
JKAAN	3	4	2		3									12 (12.1)
JKAFN	0	1	1		1									3 (3.0)
JPN	0	1	3	1		1						1		7 (7.1)
Others		1	4				1							6 (6.1)
Total	9 (9.1)	32 (31.3)	26 (26.3)	6 (6.1)	9 (9.1)	7 (7.1)	2 (2.0)	1 (1.0)	2 (2.0)	2 (2.0)	1 (1.0)	1 (1.0)	1 (1.0)	99 (100)

Exp., experimental, Non exp., non experimental, Sur., survey, Cor., correlation, Eva., evaluation, Sear., Search. JKA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JKAA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JKAF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JPN,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3편이었다.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중 간호사 대상이 9편으로 많았고, 의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1편이었다(Table 3).

4. 연구설계별 주요 연구개념

1) 상관관계연구

양적연구 중 상관관계연구는 26편이었다. 연구 개념들은 중복되어 연구되었으며, 삶의 질과 대상자의 지각된 스트레스나 자기효능감 및 이행, 가족지지 등의 상관성 연구는 12편으로 가장 많았고, 이식수혜자들의 스트레스와의 상관성 연구는 8편, 지식이나 태도와의 상관성 연구는 5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과 관계성을 파악한 개념 중 스트레스와의 상관성을 본 연구가 4편으로 가장 많았다. 사회적 지지나 가족지지는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및 치료지시이행과의 상관관계도 파악되었으며, 기타 불확실성과 상태불안 및 질

병 태도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였다(Table 4).

2) 실험연구

실험연구는 9편으로 간호중재방법으로는 자기효능 증진 운동프로그램이 4편으로 가장 많았고, 스테로이드 투여와 관련된 연구가 2편, 장기이식, 기증 및 뇌사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단전호흡운동 프로그램, 전화상담 프로그램연구가 각각 1편씩이었다. 9편의 연구에서 여러 개의 중복된 개념이 많았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효능 운동프로그램에서는 우울, 불안, 삶의 질, 지식, 자기효능감, 체중, 악력, 배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헤모글로빈, 일상생활활동, 체지방율, 운동시간, 심폐기능 등의 변수를 측정하였고, 스테로이드 투여와 관련해서는 악력, 배근력, 신전근력, 내전근력, 거퇴관절의 굴곡, 유연성 근지구력 및 일상생활활동 등의 변수를, 장기이식, 기증 및 뇌사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에서는 지식과 태도를, 단전호흡 운동프로그램에서

Table 3. Classifications of research subjects

(N = 99)

Recipient (n=70)				Donor (n=10)		Medical personnel (n=10)		Student (n=2)		General Person (n=3)	Other (n=4)
Kidney	Liver	Heart	All	Donor	Donors' family	Nurse	Doctor	Nursing student	Medical student		
47	13	7	3	7	3	9	1	1	1	3	4

Table 4. Related concepts used to correlation researches

(N=26)

Major variable	Related concepts	Total
Quality of life	Compliance(2), Family support(1), Social Support(3), Self efficacy(2), Stress(4)	12
Stress	Social support(3), Self efficacy(2), Hardiness(1), State Anxiety(1), Self care(1)	8
Knowledge attitude	Brain death organ donation(1), Organ transplantation(1), Organ donation(1), Educational need of organ transplantation recipients(2)	5
Compliance	Health belief(1), Self efficacy(2), Social support(1)	4
Self efficacy	Coping(1), Social support(2)	3
Uncertainty	State anxiety & illness attitude(1)	1

는 스트레스, 불확실성, 악력, 배근력, 유연성, 총 콜레스테롤치와 크레아티닌, 삶의 질 등의 변수를, 전화상담프로그램에서는 스트레스와 자가간호 등의 변수를 측정하였다.

실험연구의 연구대상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중재한 1편을 제외한 모든 연구에서 신장 이식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각 간호중재에 따른 결과는 자기효능증진 운동프로그램이 수혜자의 체중, 체지방율, 불안 및 우울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스테로이드 투여로 인해 근력, 근지구력과 유연성 및 일상생활활동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적 간호중재 프로그램은 지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전호흡운동 프로그램은 신체 심리적 상태 및 삶의 질에 효과가 있었으며, 전화상담 프로그램에서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자가간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3) 질적연구

장기기증 및 이식 관련 간호연구에서 질적 연구는 총 19편이었으며, 연구방법론에서 근거이론을 적용한 연구는 9편이었고 그 중에서 Strauss와 Corbin의 방법을 적용한 연구가 7편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Glaser의 분석방법이 1편, Glaser, Strauss 및 Corbin의 분석방법을 적용한 연구가 1편이었다. 현상학을 적용한 연구는 7편으로 그 중 Van Kaam의 방법을 적용한 연구가 3편, Colazzi의 방법 3편, Giorgi의 방법이 1편이었다. 해석학적 현상학의 Benner의 분석방법을 적용한 연구는 2편이었고, 일상생활기술지의 Roper와 Shapira의 분석방법을 적용한 연구가 1편이었다.

연구개념을 살펴보면, 장기기증자의 의사결정 경험(4편), 생체 장기기증자와 가족의 적응(1편), 신장기증자의 경험(1편), 뇌사 장기 기증자 가족의 경험(1편), 신장이식수혜자의 적응 경험(1편), 신장이식수혜자의 경험(5편), 간이식수혜자의 적응경험(1편), 간이식수혜

Table 5. Analysis of nine experimental studies

(N=9)

Independent variables	Subject	Research period	Dependent variable	n
Self efficacy promotion exercise program	KT patients	12 weeks	Anxiety, depression, quality of life, knowledge, self efficacy, weight, grip strength, back lift strength, muscle endurance, flexibility, hemoglobin, activities of daily living, body fat rate, exercise time, cardiopulmonary function	4
Steroid medication	KT patients	16 weeks 12 weeks	Grip strength, back lift strength, hip, knee & ankle joint flexion and extension, flexibility, muscle endurance, activities of daily living	2
Educational program regarding organ transplantation, donation, brain death on the knowledge	Collage Students	4 weeks	Knowledge, attitude	1
Danjeon breathing exercise program	KT patients	9 weeks	Stress, uncertainty, grip strength, back lift strength, flexibility, total-cholesterol, creatinine, quality of life	1
Telephone counseling program	KT patients	4 weeks	Stress, self care	1

KT patients, kidney transplantation recipient patients.

자의 경험(1편), 심장이식수혜자의 삶(2편), 심장이식수혜자의 경험(1편), 장기이식이식 코디네이터의 실무 경험에 관한 연구가 1편으로 각각의 장기에 따라 단계별로 대상자가 경험하는 현상을 파악하거나 경험의 의미, 적응 반응에 대한 의미를 대상자의 표현자료를 그대로 정리하여 내용을 이해하고자 노력하였고 그에 따른 결과를 도출하는 연구들이 그 영역별로 분류하여 설명되었다(Table 6).

IV. 논 의

국내의 장기기증 및 이식 관련 간호학 논문의 동향 분석은 본 연구가 최초이기에 비교 고찰할 대상 논문이 없고, 다른 주제로 분석한 연구결과와는 관점이 달라 비교 고찰할 수 없었다. 그리고 학위논문이 학술지

에 게재된 경우 학위논문에 포함시켰다.

연구에서 연대별 연구문헌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1987년부터 장기기증 및 이식에 관련 연구가 시작되어 1995년대 이후 증가되었고, 특히 2000년에서 2005년까지 만 5년 동안의 연구가 이전 10년간에 보고된 연구숫자와 같을 정도로 활발하게 연구되었다.

논문의 연구유형에서 학술지 게재논문은 41.4% 정도였고 학위논문은 58.6% 정도였다. 이는 학위논문 편수가 많은 편이지만 학위논문을 전문학술지에 게재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설계에서는 양적연구 설계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보다는 석사학위 논문에서 더 많이 수행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비실험 연구가 64.7%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실험연구는 9편으로 전체 장기기증 및 이식에 관한 연구의 약 9.1% 정도로 Kim(2004)의 노인간호연구 88편의 분

Table 6. Analysis of qualitative researches

(N=19)

Design	Analysis	Research theme	n	
Grounded theory	Glaser(1998)	Experience of decision making to donate organ	1	
		Strauss & Corbin(1990)	Adjustment to kidney transplantation patients	1
	Glaser(1998)	Adjustment in families with kidney donor or recipient	1	
		Experience on decision making to donate a living kidney	1	
		Experience of kidney transplantation recipients	1	
		Life of heart transplantation patients	2	
		Experience of kidney transplantation recipients	1	
		Experience of decision making to donate a living kidney	1	
	Strauss & Corbin(1990)			
Phenomenology	Van Kaam(1985)	Experience of kidney donors	2	
		Experience of heart transplantation recipient	1	
	Colazzi(1978)	Adjustment Experience of Liver Transplantation Recipients	1	
		Adjustment after Kidney Transplantation	1	
		Experience of Transplantation Coordinators' Practice	1	
	Giorgi(1970)	Experience of kidney transplantation recipients	1	
Interpretive phenomenology	Benner(1985)	Experience about organ donation of brain death donors' families	2	
Ethnography	Roper & Shapira(2000)	Experience of liver transplantation recipients	1	

(): year.

석에서 15.9%와 Choi 등(1998)의 16%의 실험연구 보고에서 보다 낮았고, Yang과 Shin(2003)의 보완대체치료에 관한 88편의 논문 중 55%가 실험연구인 것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장기기증자의 장기기증 건수가 매우 적어 많은 이식대기자가 이식수술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 현상으로 연구대상자가 한정되어 실험연구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최근 장기기증 및 이식이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향후 이식환자를 대상으로 많은 실험연구가 시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질적연구는 1999년 이후부터 연구(Yi, 1999)되기 시작하였고, 연구방법으로는 근거이론 연구, 현상학적 연구와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등이 많이 적용되었다. 질적연구의 적용 편수는 19편(19.2%)정도 수행되었으며, 석사학위논문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전체 연구의 질적연구 분포(19.2%)는 Kim 등(2004)의 43편(15.5%)과 Suh 등(2007)의 33편(9.0%)에 비해 높은 분포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이식수술과 추후관리 과정에서 간호사가 장기이식수혜자와 가족들과의 관계가 친밀하여 질적연구에서 중요한 라포 형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장기별 수혜자를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가 전체 70% 정도 되었고, 특히 신장이식수혜자를 대상으로 48%정도가 연구되었다. 이는 다른 대상자들보다 신장이식을 받은 환자가 많고 이식 후 합병증 예방과 교육중재 등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신장이식수혜자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된다. 뇌사자 장기 및 이식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중환자실 간호사나 담당의사 등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홍보나 교육적 중재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의 측정도구는 Ro(1988)와 Bang(1991)의 삶의 질이나 Choi(1983)의 가족지지를 제외한 대부분이 외국의 도구를 번안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의 장기별 수혜자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표준화된 도구 개발이 필요하며, 이식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일반인과 이식을 받지 못한 대

상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의 수준까지 파악하기 위한 비교연구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연구설계에 따른 문헌을 분석한 결과, 상관관계 연구는 삶의 질,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등의 개념이 많이 연구되었으나 반복연구는 삶의 질과 가족지지 등을 제외하고는 2-3편에 그쳐 개념간의 상관관계를 일관성 있게 설명하거나 비교할 측정된 연구 결과가 적어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웠다.

실험연구는 주로 신장이식수혜자를 대상으로 자기효능증진 운동프로그램 중재(Ahn & Kim, 2000; Ahn, 2001)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간호중재와 교육중재에 관한 연구에서는 이들 중재의 프로토콜이 연구마다 달랐고, 그 결과를 보는 변수와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 또한 각기 달라 가장 효과적인 중재를 선택하거나 연구 결과를 실무에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었다. 따라서 동일한 대상자와 중재방법 및 동일 변수를 통한 반복 연구로 누적된 결과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장기에서도 신장뿐만 아니라 간장, 심장, 폐, 췌장 등에서도 많은 이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각각의 장기에 맞는 중재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간호중재 효과측정에서 비용효과와 같은 경제적 측면은 전혀 연구되어 있지 않아 앞으로 간호의 질 보장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면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질적연구는 1996년 이후부터 연구되기 시작하여 수혜 경험 현상을 설명하고 있거나 경험의 의미해석과 반응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장기기증 및 이식에 대한 환자들의 적절한 간호 현상이나 경험의 의미를 토대로 이를 간호중재에 적극 활용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장기기증 및 이식에 관한 연구는 Oh(1987)의 석사학위논문을 시작으로 1996년부터 증가하여 2005년까지 10년 동안 78%정도가 보고되었고, 이후로는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같은 개념의 반복된 연구가 부족하고, 그에 따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웠다. 연구대상자는 주로 장기수혜자와 그의 가족이 대부분이어서 다양한 상황과 중재 효과를 다루는 연구가 미비하여 효과크기를 보는 대부분의 메타분석(So, Cho, & Hong, 1996; Cha, 2004; Kim, 2007; Kim, Park, & Park, 2008) 연구가 어려웠으

며, 연구주제에서도 장기기증과 장기이식을 달리 연구하거나 분석하여 한층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생체 장기기증이나 뇌사 장기기증을 같은 의미로 생각하는 일반인들에게는 자세한 홍보는 물론 대상자 특성 등이 구분되어 정교하게 설계된 연구를 통하여 이 주제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된다면 학문적 깊이가 더 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리고 실험연구의 경우 자기효능증진이나 교육에 관한 간호중재는 비교적 연구되었으나 중재 프로토콜이나 결과 변인이 각각 달라 실무적용의 어려움이 있어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점의 보완이 요구된다. 현재로서는 연구에 사용된 개념이 다양하고 폭넓어서 연구의 일관된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웠으며 앞으로 반복연구와 축적된 연구가 필요하며 실무적용과 이론개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기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간호연구의 전체적인 연구논문에 대한 구조적 분석에 그쳤지만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장기기증 및 이식의 간호분야에 대한 연구의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연구 방향에 기초자료가 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내의 장기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간호연구 논문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간호연구의 효과적이고 다양한 연구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1987년부터 2008년 6월까지 발표된 학위논문과 간호학회지 및 분야별 간호학회지에 게재된 99편을 대상으로 연도별 연구유형 및 학술지 게재 분포, 연구설계, 대상자, 측정변수 및 실험연구의 간호중재 결과 및 질적연구의 주제와 그 결과들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기증 및 이식에 관한 간호연구의 유형은 다수의 학위논문이 수행되어 총 58편이었다. 그 중 석사학위가 49편이었고, 박사학위논문은 9편이었다. 연구설계별 분포는 양적연구가 총 73편이었으며, 양적연구 중 조사연구가 32편, 상관관계연구 26편, 검증연구 6편, 실험연구 9편이었으며, 질적연구 19편, 기타(Q-방

법론, 방법론적 연구, 탐색연구, 사례연구, 메트릭스 텔타이연구)가 7편이었다.

둘째, 연구대상자는 장기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70편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10편, 장기기증자 대상은 10편이었고, 장기별로는 신장이식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47편으로 가장 많았고, 간장이 13편, 심장 7편이었다.

셋째, 상관관계연구는 삶의 질과 대상자의 스트레스나 자기효능감과 이행 등의 상관성 연구가 12편으로 가장 많았고, 이식수혜자들의 스트레스와 사회적지나 자기효능감의 상관성 연구가 8편이었다.

넷째, 실험연구는 총 9편으로 신장이식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간호중재로 자기효능증진 운동프로그램은 수혜자의 체중, 체지방율, 불안 및 우울에 효과적이며, 스테로이드 투여량이 근력, 근지구력과 유연성 및 일상생활활동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적 중재프로그램은 지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쳤고, 단전호흡운동 프로그램은 신체 심리적 상태 및 삶의 질에 효과가 있었다.

다섯째, 장기기증 및 이식에 관한 질적연구는 1991년 이후부터 보고되기 시작하였고, 연구방법에서 근거이론 연구가 9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현상학 연구가 7편으로 많았다. 연구 주제로는 장기별 수혜경험 중 신장이식수혜자와 가족의 경험이 가장 많았고, 뇌사 장기기증을 포함하여 장기기증자와 가족의 경험 등이었으며, 장기이식 코디네이터의 실무경험에 대해서도 연구되었다.

이상과 같이 국내 장기기증 및 이식에 관한 간호연구 논문은 1990년도 후반에 급증한 연구 분야로서 대다수의 연구가 환자중심의 치료 상황에 대한 인구학적, 사회심리학적, 생리적으로인의 조사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임상에 적용 가능한 간호중재와 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실험연구의 반복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지금까지의 비 실험연구에서 실무를 위한 새로운 장기별 실험연구의 시도가 필요하다.

둘째, 장기별 합병증에 따른 각 중재방법을 개발하

고 경제적 측면이 포함된 증재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동일 주제의 반복연구가 수행되기를 제안한다.

셋째, 추후 연구에서는 장기기증 및 이식에 관한 국내외 연구진행 상태를 사정하기 위해서 국외 논문까지 확대하여 분석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길 제안한다.

References

- Ahn, J. H., & Kim, N. C. (2000). The effects of the self efficacy promotion and exercise program on the weight, body fat rate, exercise time and cardiopulmonary function of kidney transplant recipients. *J Korean Acad Adult Nurs*, 12(3), 452-462.
- Ahn, J. H. (2001). The effects of the self efficacy promotion and exercise training program on anxiety,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of kidney transplant recipients. *J Korean Acad Adult Nurs*, 13(2), 223-232.
- Bang, H. R. (1991) *Development of a quality of life questionnaire : specific for end stage renal diseas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Byun, S. J., Kim H. K., Kim A. R., Ha, H. S., & Joen, K. O. (2003). Task analysis of Korean transplantation nurse practitioner. *J Korean Acad Nurs*, 33(2), 179-188.
- Cha, B. K., Chang, H. K., & Sohn, J. N. (2004). A meta-analysis of the effects of a self-efficacy program promoting program. *J Korean Acad Nurs*, 34(6), 934-944.
- Choi, Y. H. (1983). *An experimental study of the effects of supportive nursing intervention of family support behavior and sick role behavio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s, Yonsei University, Seoul.
- Choi, S. H., Nam, Y. H., Ryn, E. J., Back, M. W., Suh, D. H., Suh, S. R., Choi, G. Y., & Choi, K. S. (1998). An integrative review of oncology nursing research: 1980-1998. *J Korean Acad Nurs*, 28(3), 786-800.
- Ha, H. S., Jeong, J. S., Chae, Y. R., Hong, J. J., Kim, I. O., Yi, M. S., Moon, D. B., & Lee, S. G. (2007). Psychosocial adjustment of the organ transplantation recipients in Korea. *J Korean Soc Trans*, 21(2), 269-281.
- Kim, C. G. (2004). An analysis of research reported in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1999-2003. *J Korean Gerontol Nurs*, 6(1), 81-90.
- Kim, E. S., Kim, G. S., Kim, D. R., Kim, E. J., Sung, K. M., Shin, H. K., Shin, H. S., Lee, Y. J., & Jeong, S. H. (2004). Trends of nursing science inquiry in doctoral dissertations. *J Korean Acad Nurs*, 34(2), 315-323.
- Kim, J. H. (2007). A meta-analysis of effects of job stress management intervention. *J Korean Acad Nurs*, 37(4), 529-539.
- Kim, Y. K., Park, I. H., & Park, J. S. (2008). Meta-analysis of effects on adolescent smoking cessation programs in Korea. *J Korean Acad Nurs*, 38(2), 204-216.
- Korean Network for Organ Sharing (2008). *Statistics of organ transplantation by year*. retrived Jul. 10, from the Korean network for organ sharing web site: <http://www.konos.go.kr>
- United Network for Organ Sharing (2008). *Statistics of organ transplantation by year*. retrieved July 10, from the United network for organ sharing web site <http://www.unos.org>
- Oh, K. H. (1987).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renal transplantation patient's health beliefs and their compliance with follow-up care*.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Ro, Y. J. (1988). *A study on quality of life of middle-aged adult in seou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s, Yonsei University, Seoul.
- Suh, Y. O., Park, J. S., Yang, J. H., Kim, H. W., Suk, M. H., Shin, H. S., Jang, H. J., Jung, M. S., & Chung, M. S. (2007). Analysis of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Korean academy of nursing. *J Korean Acad Nurs*, 37(6), 1013-1019.
- So, H. S., Cho, B. H., & Hong, M. S. (1996). Analysis of nursing studies of coping conducted in Korea from 1978 to 1995. *J Korean Acad Nurs*, 26(3), 709-729.
- Sung, M. H, Son, E. Y., & Lee, S. E. (2006). A study on knowledge and attitude of Nurses regarding brain death organ donation. *Clinical Nursing Research*, 12(1), 125-135.
- Yang, N. Y., & Shin, K. R. (2003). The analysis of research trend about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y(CAT) in nursing of Korea. *J Korean Acad Adult Nurs*, 15(2), 226-235.
- Yi, M. S. (1999). Experience on decision making to donate a living-related kidney. *J Korean Acad Adult Nurs*, 11(3), 511-525.